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할 진짜 재산

(골1:24~29)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할 진짜 재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할 진짜 재산'
재산도 뭐 진짜 재산이 있고 가짜 재산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재산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 재산을 사용한 효과가 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변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하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돈을 많이 써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국한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재산을 쓰게 되면 하늘이 움직이고, 그 하늘의 움직임에 의해서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진짜 재산이 뭐냐?
돈, 뭐 보석 그리고 부동산, 빌딩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체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재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짜 재산은, 필요하면 돈도 부동산도 그리고 기업도,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게 진짜 재산이에요.
근데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기업 같은 것도 다 유산으로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데, 묘하게 이 진짜 재산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 쓰고 죽지 않으면 쓸 사람이 없게 되고, 그 진짜 재산을 씀으로써 나타날 수 있었던 모든 효과가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 재산이에요, 진짜 재산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진짜 재산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 한 칸 제대로 내 집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재산이 있는 것이에요.
이 건희 씨보다 낫습니다, 빌 게이츠보다 난 거에요.
또 권력도 재산이라면 박 근혜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도대체 이런 진짜 재산이 도대체 뭔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돈과 부동산과 그리고 기업, 또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모~든 재산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내게 지금 현재 없어도, 무엇이든지 다 내게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진짜 재산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 하반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빼버리면 (수식구이니까), 문장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런 진짜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재산을 다 쓰면, 쓰는 대로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 재산이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재산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후로는 모두가 다 막강한 재산가들이 되는 거예요.
재산가 못 돼도 바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계통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톨릭에서 교회역사 속에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자들의 경우 인생이 평탄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난을 그 삶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난이, 은공으로 작용하면서 평신도들에게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성자들의 고난이 평신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은공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의 고난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고난에 불충분한 부분을 채우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다 메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바울이 메꿨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
뭐 별의 별 해석이 다 나와요.
이게 또,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당하고 뭐 순교당하고, 그리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낼 때 고사지내지 않았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찍히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서 이런 유의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건, ‘너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괴로움이다.’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특징이 영적 이해타산의 대상이고, 이해타산을 잘해보면, 그게 바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유익한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괴로움은, 내 평강과 내 기쁨과 내 입에서의 감사를 중단시킬 수 없

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생겼다, 그것도 영적인 이해타산을 잘해 봐요, 그러면 내가 병 걸렸기 때문에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속에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감사와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고난이고, 완전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저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할까, 학자들이.
왜 못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활화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유1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유1회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유1회적으로 완벽하게 일어난 죄 사함의 사건임과 동시에, 날마다 내 삶에서 재현되는 사건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저 고난과 죽으심은 나의 고난과 나의 죽으심을 대신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시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기억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생활화이고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계~속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게 이게 신앙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재현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내 육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에 1년 365일, 한 달

30일, 하루 24시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아내 앞에서 직장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재현되어야 되니까, 10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삶 속에서 재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재현돼야 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바로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재현시킵니까?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은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셨잖아요? 온 몸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에 창에 찔립니다.
그 모습에 그대로 내 육체를 갖다 포개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 육체를 갖다 포개버려요.
그리고 지금 돈 문제가 앞에 놓였을 때에 내 육체가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포개져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은 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은 자다, 내 육체는 그렇게 죽은 자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고 자식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은 자이니까, 손에 못 박혀가지고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에 못 박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재산인데, 그걸 쓰는 방법은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육체에 채우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포개는 거예요.
포개서 그 형상 그대로 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에 채우는 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 재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썼으니까, 돈을 쓰면 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썼으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쓴 그만큼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사명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자기의 직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9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29절에 '이를 위하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고 온전한 자가 되게끔 하는 일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게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을 가지고 계획한 그런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유럽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돈을 얼마만큼 쓰면 유럽과 소아시아와 중동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지배하고 있던, 로마제국을 기독교국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를 써야.
이건 뭐 돈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이 그렇게 전한 그 결과가 나중에 계속 그 이익이 불고 불고 불고 불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국가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마는 그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써야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부딪쳐오는 모든 문제들에대해서 내 육체를 주님의 그 죽으심에 포개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포개서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부터 비밀의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 재산을 쓰면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끌어오실 거예요, 부동산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동산을 끌어오실 겁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서 일어나야 제가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나한테 안 일어나니까.
근데 안 일어나도 자기앞수표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 눈에 으악! 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일어나고 있어도, 자기앞수표입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비밀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그동안 자식에게 붙였던 마음, 아내에게 붙이고, 남편, 애인에게 붙이고, 사업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는데, 돈에 마음을 붙이고 있었는데, 어디다 붙입니까?
육체가 죽어버렸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가 있어야 마음이 가서 붙을 수 있는 건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마음에.
이건 무슨 일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대면하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은 지금 하늘 위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 두 남녀가 아주 열렬히 사랑을 해요, 근데 두 집안이 반대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뭐 죽어버릴 거야, 어떨 거야 이래 가지고선 겨우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양가의 부모가 허락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 와서 새살림을 사는데, 둘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니! 내 옆에 지금 이 사랑했던 애인이 같이 누워 있다는 게 이게 정말인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몸에 손이 닿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내 옆에 누가 있네.
소위 말해서 실감을 한다는 거예요, 실감.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맞습니까? 실감한다고 말해야 맞습니까, 하여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던 그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 살아 계세요, 만지면 뭉클뭉클하게 만져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왜 영광의 소망이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게 들리게 내 앞에 문제가 많아요.
돈 문제 있지요 급합니다, 내 건강문제 있지요 급합니다, 내 가정문제 있습니다, 급해요, 사업하는데 급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그 급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으로.
그러면서, 그 돈이 많이 벌렸을 때 기쁜 거,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분이 내 아버지로서 먼저 느껴지면서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모든 기쁨이 다~ 흡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박해가 오고, 순교가 오고, 카타콤에서 살게 돼도, 그렇게 하나님이 뭉클뭉클 살아계신 분으로 실감나면서 느껴지는 이 기쁨과 평강과 행복감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그리스도의 남은 재산이 재산이고, 그 재산을 쓰는 방법은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육체에 채우면, 하늘과 땅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이루고 싶은 뜻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내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이 내 옆에 자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듯 새삼스럽게 실감하고 감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내게 실감이 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얻고, 땅에서 얻는 거예요.

근데 꼭, 사도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만 사명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말했어요?
만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것이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자식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도 사명이고, 내 사업도 사명이고, 내 가정도 사명이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뭔가 지불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여생 동안 남겨져 있는 재산은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육체에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용하는 겁니다.
육체에 채워 넣기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것인 내 자식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사업에 대해서 마음이 죽을 때,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업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것인 사업장에서 이루고 싶으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 이거,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왜 재산을 불리려 그래요?
그런 바보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재산은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을 때까지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제대로 쓰여 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 오셔서 당신이 이루고 싶으신 일들을, 소위 사명이라는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드렸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을 끌어오실 것이고, 부동산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끌어들여 오실 것이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가져오실 것이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가져 오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끌어오실 것이고.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게, 이 재산은.
죽기 전에 꼭 다~ 쓰고, 그래서 그 재산 쓴 결과가 아주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아버지가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걱정을 합니까, 바보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중에 재산, 진짜 재산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움으로써 다 쓰게 하시고, 그 다 쓴 결과가 주렁주렁 매일매일 열매로 맺혀지는 복된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